

허문희의 '꿈꾸는 섬' (2009).
산지천갤러리 제공

산지천갤러리 3인 3색 전시

김정근·허문희·한혜민 작가 갤러리 2~4층 각각 개인전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갤러리에서 각기 다른 빛깔을 품은 전시가 나란히 열리고 있다. 허문희 개인전 '섬의 문장들-인터미션(INTERMISSION)' (4~15일), 한혜민 개인전 '제주, 바다의 시간' (4~15일), 김정근 개인전 '불의 변주' (3~15일)다. '2026년 원도심 예술공간 전시실 대관공모'에 선정된 전시들이다.

허문희는 갤러리 3층에서 2000년부터 이어온 '섬' 연작을 중심으로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간의 창작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 작업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작가의 화면 속 섬은 비현실적인 자연, 생명력에서 얻는 위안 등 상징적 공간이다. 여러 재료를 판에 붙여 질감을 표현하는 콜라그래프 기법의 판화, 북아트, 아크릴 회화 등을 내놨다.

한혜민은 갤러리 4층에서 제주 해안 풍경을 기록하는 네 번째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각 장소에서 왼쪽·정면·오른쪽을 바라보며 색연필로 그린 세 작품을 하나의 파노라마로 연결했다. 거기엔 계절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의 색과 암벽, 파도와 바람이 남긴 시간의 흔적이 머문다.

김정근은 제주 전통 돌가마인 노랑굴, 검은굴에서 구워 낸 옹기를 갤러리 2층에서 선보이고 있다. 갈라지거나 뒤틀리고 녹아내린 그릇들은 실패가 아닌 불이 건네는 위로라고 말한다.

전국 국악인 한자리 전통 예술 축제

6~8일 2026 제주전국국악대전 첫날 전야제 이희문&놈놈 공연 전국민요경창·전국국악경연 등

전통과 오늘이 만나는 2026 제주전국국악대전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주최·주관으로 전야제 축하 공연, 전국민요경창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로 나눠 우리 가락의 매력을 전한다. 전국 전통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만이 아니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첫날 전야제는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경기 민요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여온 이희문과 남성 민요 듀오 '놈놈'이 함께하는 '이희문&놈놈'의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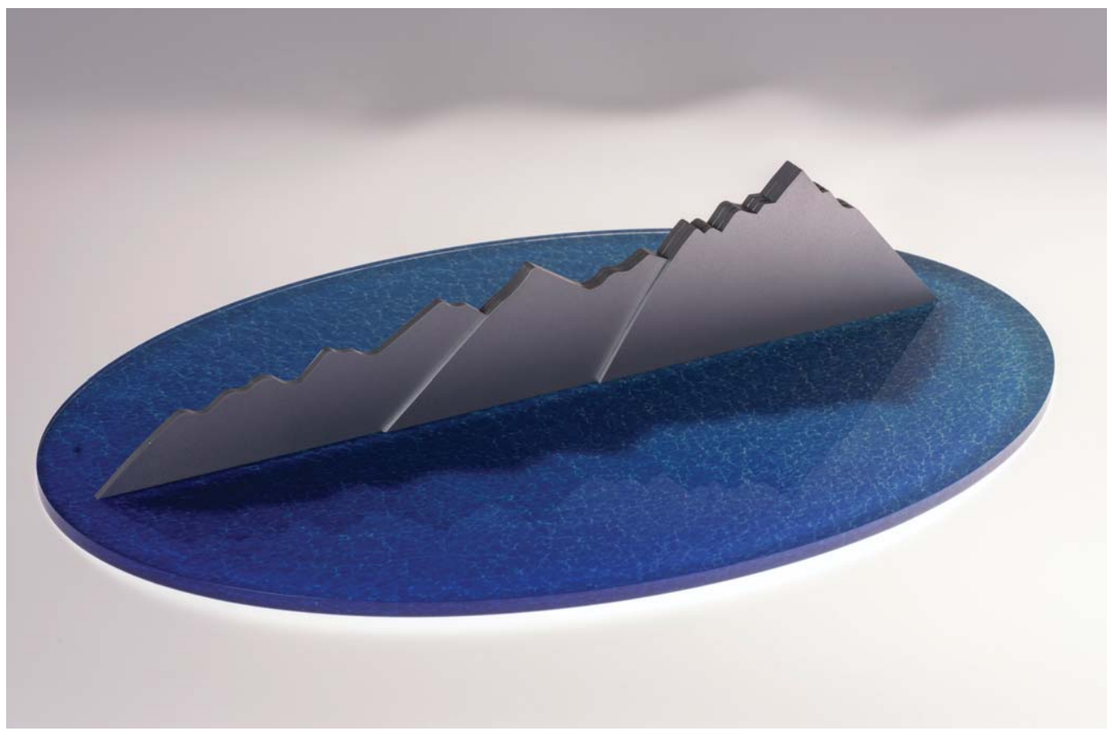
식전 행사로는 제주 전통의 숨결을 담은 '연물난타'를 무대에 올린다. 제주굿 연물의 장중함과 역동적인 북의 울림을 현대적인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둘째 날인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43회 제주전국민요경창대회가 이어진다. 대회는 학생부, 신인부, 일반부, 단체부, 명창부 5개 부문으로 나뉜다. 경연 후에는 전년도 수상자들이 축하 공연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문예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오전 10시부터 제9회 제주전국국악경연대회를 치른다. 기악부, 무용부, 타악부 3개 종목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명인부로 구분해 경연을 벌인다. 김산옥 명창의 축하 무대, 지난해 국악경연대회 최우수 팀 축하 공연도 잇따른다.

이날 문예회관 대극장 로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녀 테왁 만들기, 기메 만들기, 제주를 닮은 화과자 체험 등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파리 '살롱 꽁빠레종' 한국 작가 제주 특별전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에서 프랑스 파리의 국제 미술전 '살롱 꽁빠레종(Salon Comparaisons)'에 참여해 온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펼쳐진다. 이달 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미술관 분관인 박광진관에서 열리는 '살롱 꽁빠레종 제주 특별전'으로 이경순의 '메디테이션(Meditation)-바라보다' (사진) 등 19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살롱 꽁빠레종은 파리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195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작가들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참여해 한국 현대 미술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문화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국립합창단 제주 무대 친숙한 영화 음악 선곡

국립합창단이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초청으로 제주 무대에 오른다. 이달 21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시네마 클래식스(Cinema Classics)'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6년 국립합창단 지역공연 공모사업'으로 마련했다. 스크린에 흐르던 선율을 합창과 관현악, 춤이 어우러진 무대로 빚는다.

이날 민인기 예술감독의 지휘로 국립합창단과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한다. 올터아츠컴퍼니의 현대 무용, 탱고 공연도 더해진다.

공연 프로그램은 영화 '영광의 탈출', '시네마 천국', '사랑은 비를 타고', '타이타닉', '라라랜드', '알라딘', '여인의 향기', '오즈의 마법사', '맘마미아' 등에 쓰인 친숙한 음악으로 구성했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5000원. 예매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진선희기자

바람에 길 내주는 돌 트멍의 공존

한항선 개인전 '트멍…' 9일까지 갤러리 이호

그의 화면 속에는 머리 위에 현무암을 얹은 '돌담 요정'이 보인다. 작가는 이를 '트멍이'라고 명명했다. '트멍'은 틈을 뜻하는 제주 방언에서 따왔다. 그는 트멍이를 두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로 서로 다른 생명들을 잇는 매개이자 자연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소개했다.

갤러리 하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 한항선 작가의 개인전 '트멍; 땅속 깊이 뿌리내린, 다정한 온기'에 트멍이가 있다. 돌담의 틈을 모티프로 삼은 트멍이를 통해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적 시선으로 풀어낸 전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트멍이와 동물들은 바람과 숲의 흐름을 따라 걷고 나무의 품 안에서 잠시 머문다. 작가가 1호 크기의 세필로 색을 여러 번 쌓아 올리는 느린 시간 속에서 숲과 생명의 풍경이 만들어지고 그 틈새로 온기가 번진다.



한항선의 '트멍; 땅속 깊이 뿌리내린, 다정한 온기'. 작가 제공

한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작품 속 트멍이는 우리와는 다르지만 대등한 존재들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포용한다. 이는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적었다. 전시는 이달 9일까지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갤러리 이호. 진선희기자

4·3과 여성의 삶 일본 관객과 만난다

다큐멘터리 '목소리들' 개봉 특별 대담·관객과의 대화도

제주4·3의 참혹한 시기를 건넌 여성들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되살아난다. 다큐멘터리 영화 '목소리들'(감독 지혜원)이 이달 7일 일본 오사카·도쿄·교토에서 개봉하면서다.

제주4·3평화재단이 제작을 지원한 '목소리들'은 4·3을 겪은 여성 생존자 4명의 증언을 기록한 작품이다. 2024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제21회 EBS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일본 개봉에 맞춰 현지에서 특별 대담 등이 이어진다. 재일본제주4·3관련단체연락회는 이달 14일 오후 3시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회관)에서 '제주4·3과 여성, 그 고난의 길'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15일 오후 1시30분에는 오사카 제7예술극장, 오후 4시35분에는 교토 데마치자에서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잇따를 예정이다.

대담에는 제주4·3연구소장을 지낸 허영선 시인, 조정희 제주4·3평화재단 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여성' 생활사 조사 계기, 영화 제작 과정, 영화에 담지 못한 여성 생존자들의 삶과 기억을 나눌 예정이다. 영화의 일본어 자막 감수와 해설을 담당한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공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오광현 재일본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영화 상영과 특별 대담이 재일제주인들에게는 고향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일본 사회에 4·3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수 축 상 CONGRATULATIONS

2026년 안전보안관 활동우수사례공모전 최우수상





제주시 안전보안관(단체부문)

김상현(개인부문)
제주시 안전보안관

2026년 안전보안관 활동우수사례공모전에서
전국 최초 개인 및 단체부문(주최 :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안전보안관 대표 **김상현** 외 **회원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대 상



인석 김경환

제8회 추사 선생 숭모 전국 휘호 대회에서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월봉묵연회 회원일동

수 축 훈 CONGRATULATIONS

국민포장



서 상 수
(본회 자문위원)

국민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이도2동위원회
위원장 **이 익 중** 외 **회원 일동**